

#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군민 호소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장성군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를 막아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틀 연속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3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4일간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 18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5일 발생한 장성 5번 삼계면 주민은  
서울 양천구 243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됐으며,  
현재 전남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장성 5번과 접촉한 주민 15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분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발생한 장성 6번 확진자는 상무대 교육생으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외박을 나가 서울 지역을 방문하고  
15일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21일부터 감기 증세가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전남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 6번 확진자와 함께 훈련을 받은 상무대 교육생 296명과

삼계면 마트에서 이동 동선이 겹치는 주민 20명 등  
접촉자 31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생 집단에서 총 16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대전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 우리 주민 20명을 비롯한 30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장성 6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 시설을  
즉각 임시 폐쇄 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고,

장성 7번부터 22번 확진자는 11월 19일부터  
상무대 모든 교육생들의 면회와 외출 금지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은 장성 관내에서 이동이나  
주민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상무대와 협력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렇게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지난 1, 2차 유행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모임, 친목활동, 체육시설,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연말까지는 ‘긴급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겨울 감기로 착각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은  
긴장을 풀면 감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시 멈춰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크실 겁니다.  
우리 지역 장성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281명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군은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군은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8.

장성군수 유 두 석